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나타난 성형외과 의사와 성형 수술의 이미지

김한준·황 건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형외과학교실

Image of Plastic Surgeons and Plastic Surgery Illustrated in Korean Movies and TV Dramas

Han Joon Kim, Kun Hwang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and the Center for Advanced Medical Education by the BK21 Project,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cheon, Korea

Nowadays, plastic surgical operations are increasingly being performed in Korea. We have gained added interest in this because some professional pictures contain plastic surgery in their venue. In the films, we intend to see the recognition of society for plastic surgeons and which field of plastic surgery. The list of movies for analysis were 'Plastic Beauty (1975)', 'Penthouse Elephant (2005)', '200 Pounds Beauty (2006)', 'Cinderella (2006)', and 'Time (2006)'. The TV dramas were 'She is looking (2005)', 'Lovers (2006-2007)', and 'Before & After Plastic Surgery Clinic (2008)'. Film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the chief complaints and names of the operations, character of plastic surgeons, result of the operation and its possibility in reality, and its effect of plastic surgery on the life of the patients. Most of the film contained facial transplantation or the change of the face or bod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shape. Character type of the plastic surgeons was mostly medical realism, rather than ideal humanism. Most of the plastic surgeons have capability as a doctor; however, some of them had extramarital affairs. The surgery was successful in most of the cases, but were the patients happy with the results? This was not the case in the movies. In only one movie, '200 Pounds Beauty', the patient became happy; rest of them were eminently unhappy with the outcome. Why the discrepancy?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minds of the people in the films, but considering that the majority of the characters in the films were rather unsavory, one may deduce that a crooked mind functions differently. Perhaps it is too much to hope for a day that will come when we will see a film that portrays the mental anguish that accompanies each and every procedure the Korean plastic surgeons make.

Keywords: Motion pictures, Plastic surgery, Body image

서 론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전문의 수가 1,8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성형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형수술이나 성

형외과 의사가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TV의 의학드라마에 등장하는 의사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한편 보고된 바 있으나,¹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성형수술이나 성형외과 의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²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성형수술과 성형외과 의사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Correspondence: Kun Hwang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and the Center for Advanced Medical Education by the BK21 Project,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7 Inhang-ro, Jung-gu, Incheon 400-711, Korea

Tel: +82-32-890-3514 / Fax: +82-32-890-2918 / E-mail: jokerhg@inha.ac.kr

Received May 31, 2012 / Revised June 13, 2012 / Accepted August 1, 2012

본 론

1. 분석자료 및 방법

영화로는 국내 최초로 성형수술이 등장하는 영화 '정형미인(1975)'을 기점으로, '펜트하우스 코끼리(2005)', '미녀는 괴로워(2006)' (Fig. 1), '신데렐라(2006)', '시간(2006)'이 있었으며, TV 드라마로는 '그녀가 보고 있다(2005)', '연인(2006-2007)', '비포&애프터 성형외과(2008)' (Fig. 2)가 있었다.

다음의 네 항목을 분석하였다. 1) 환자의 주요 호소증상 및 수술의 종류, 2) 성형외과 의사의 유형(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 주체, 대상, 발령자, 수령자, 원조자, 대립자),^{3,4} 3) 수술의 성공 여부와 현실에서의 가능성, 4) 수술로 인하여 환자가 행복해졌는지 여부.

2. 분석결과

1) 환자의 주요 호소증상 및 수술의 종류

얼굴이식술이나 얼굴이나 몸을 현재 모습과 다르게 만드는 수술이 주를 이룬다. '정형미인'과 '신데렐라'는 선천적 혹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얼굴의 추형을 회복하기 위한 얼굴이식술을 소재로 하고 있다. '미녀는 괴로워'에서는 과제 중과 비만에 열등감을 가진 목소리 가수가 성형수술로 S라인으로 변한다. '시간'에서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얼굴에 싫증을 낼 것 같아 현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되기 위하여 수술을 받았다.

2) 성형외과 의사의 유형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성형외과 의사는 대부분 남자(9명 중 7명)였다. 유형을 그레마스의 행동자 모델을 적용하여 보면,^{1,3,4} 가치관에 따라 인본주의보다는 대부분 현실주의에 가까웠으며(9명 중 7명), 권력을 지향하지는 않았으며(9명 모두), 실력이 좋아 모든 수술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며(6명), 환자에 대한 대응방식에 따라 대부분 현실 타협적인 이미지였으나(5명), 원칙주의자도 있었다(1명).

삼분의 일에서는(9명 중 3명) 불륜을 저지르거나('펜트하우스 코끼리', '그녀가 보고 있다') 변태적인 성향을 보였다('미녀는 괴로워'). 또한 성형외과 의사는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하여 타인의 희생에 아랑곳하지 않는 부도덕한

의사('정형미인', '신데렐라', '그녀가 보고 있다')로 그려졌다. 성형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수술을 해주는 의사가 많았으며('미녀는 괴로워', '시간', '비포&애프터 성형외과'의 원장 한건수), 수술이 환자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로 수술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주의자도 있었다('비포&애프터 성형외과'의 최용우).

'정형미인'에서의 남자 의사는 고양이를 닮은 자신의 딸을 위하여 다른 여자의 얼굴과 바꾸는 얼굴이식술을 시행하는, 자식에 대한 빛나간 사랑을 보이는 아버지이며, 다른 환자를 희생시키는 불법을 저지르는 의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신데렐라'에서의 여자 성형외과 의사는 화상으로 추형된 딸의 얼굴을 되찾기 위하여 가난한 할머니와 사는 여자 아이의 얼굴을 이식하고 목숨을 빼앗는 부도덕한 의사이다.

'펜트하우스 코끼리'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아내가 있지만 병원 진료실, 안마시술소, 스포츠카 등을 돌면서 매번 섹스파트너를 바꾸며 하루하루를 자극적인 관계로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다.

'그녀가 보고 있다'에서 성형외과 의사는 시각장애인 아내를 돌보며 살다가, 병원 간호사와 불륜 관계를 가져왔으며, 불륜녀와 호텔에 다녀오다가 한 여자를 차로 치고는 방치하고 뺑소니를 친다.

'미녀는 괴로워'에서 성형외과 의사는 평소에 폰 섹스를 즐기는 변태로, 그 사실을 환자에게 협박을 받아 거의 무료로 수술해 주는 코믹한 이미지로 표현된다.

'시간'에서 현재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되기 위하여 수술하려는 환자에게 성형외과 의사는 '지금보다 예쁘게 해줄 자신이 없다'며 만류하였지만, 환자가 '다른 것 원하지 않아요. 다르게 해 주세요. 새롭게'라고 하자 수술해주는 현실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인'에서 일류대를 졸업하고 잘 나가는 미모의 여자 성형외과 의사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깡패 두목과 상식선에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진다.

'비포&애프터 성형외과'의 최용우는 환자가 원하는가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환자에게 필요한가 아닌가로 판단하여 환자에게 수술을 포기시키기도 하는 원칙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같은 드라마의 원장 한건수는 병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수술하도록 중용하였다.



Fig. 1. Poster of '200 Pounds Beauty' (2006).



Fig. 2. Poster of 'Before & After Plastic Surgery Clinic' (2008).

3) 수술의 성공 여부와 현실에서의 가능성

'비포&애프터 성형외과' 이외의 네 영화에서 모두 수술 자체는 성공적인 것으로 표현되었다. '정형미인'과 '신데렐라'에서는 얼굴이식술이 성공하여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된다. '미녀는 괴로워'에서는 성형수술로서 얼굴뿐만 아니라 몸매도 S라인으로 변하여 지인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시간'에서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수술을 받은 상대를 알아보지 못한다.

4) 수술로 인하여 환자가 행복해졌는지 여부

수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3편의 영화 '정형미인', '신데렐라', '시간은 비극으로 끝나며', '미녀는 괴로워'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미녀는 괴로워'에서는 환자의 오랜 난제들이 성형수술로 한꺼번에 해결되었으나, 본인 스스로 변형된 정체성과 자기신체에서 느껴지는 물리적 유동성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자신의 콘서트무대에서 성형수술 사실을 고백하고 말았으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정형미인'에서 의사는 딸과 함께 죽고, '신데렐라'는 수술한 여의사와 수술받은 딸 뿐만 아니라 함께 수술받은 딸의 친구들까지 스스로 얼굴 피부를 도려내며 죽어가는 비극으로 끝난다. '시간'에서는 여주인공은 인생의 의미였던 남자를 잃고, 남자친구는 끝내 목숨을 잃는다.

고찰 및 제언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는 얼굴이식술이나 얼굴이나 몸을 현재 모습과 다르게 만드는 수술이 성형수술의 주를 이루었다. 성형외과의 입장에서 신체상(body image)의 개선뿐만 아니라 손상된 몸의 재건(restoration of the damaged body) 또한 성형외과의 주요 영역임을 성형외과 의사들이 좀 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겠다.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각 수련병원의 당직일지를 매일 학회의 서버에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수련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하는지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어떤 수술이 얼마나 시행되는지 학회홈페이지나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영화나 드라마에 성형외과의사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표현되더라도 학회 차원에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성형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수술해주는 의사가 많았으며, 수술이 환자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로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주의자도 있었다. 즉 '성형외과 의사는 돈만 주면 어떤 수술이든 해 준다'는 인식이 영화에 투영된 것으로 보이며, 학회 차원에서 시행하는 성형봉사 등을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영화에서 모든 수술 자체는 성공적인 것으로 표현되었다. 현대 의학으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수술받은 상대를 알아보지 못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굴이식

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으로 보고된 바가 몇 예에 불과한 상태이며, 유행하는 '전신성형술'으로써도 영화처럼 풍보를 미녀로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즉, 일반인들은 성형수술을 '마술'처럼 생각하므로, 수술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항의하거나 고소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술 전 설명과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성형외과 의사나 환자를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3편의 영화는 비극으로 끝나며, '미녀는 괴로워'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수술의 결과가 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결말을 나타낸 것은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삼분의 일에서는 불륜을 저지르거나 변태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한 성형외과 의사는 자신이나 자기가족을 위하여 타인의 희생에 아랑곳하지 않는 부도덕한 의사로 그려졌다. 다른 과 의사(내과, 일반외과, 신경외과)를 다룬 영화에서의 이미지와 비교해 본다면,¹ 성형외과 자체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사상과는 다르게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는 흥행성과 자극성을 고려해서 특수한 직업군과 특수한 상황을 위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의사가 가족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설정도 같은 이유이다.

하지만 자신의 환자를 위해 세심한 수술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을 막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성형외과 의사의 실제적인 모습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가장 최근의 '비포&애프터 성형외과'의 최용우가 그나마 소신 있는 원칙주의자로 그려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결 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는 얼굴이식술이나 얼굴이나 몸을 현재 모습과 다르게 만드는 수술이 성형수술의 주를 이루었다. 수술 자체는 모두 성공적이었으나 수술받은 환자는 불행해지는 결말이 많았다. 성형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라도 환자가 원할 경우 돈만 내면 수술해주는 의사가 대부분이었다. 불륜을 저지르거나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하여 타인의 희생에 아랑곳하지 않는 부도덕한 의사로 그려지는 경우도 다수였다.

최근 사회적 경향이 의사를 평가할 때 의사로서의 잣대뿐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사업가로서의 잣대도 들이댄다. 이러한 점은 환자들이 성형외과 의사를 대할 때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정적인 성형외과 의사의 이미지는 환자 진료를 점점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적합한 수술보다 좀 더 안전한, 방어적인 수술을 권하게 되는 것 같다. 또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쌍꺼풀 30분, 사각턱 1시간' 같은 광고 문구처럼 성형수술을 단순한 상품처럼 홍보하는 성형외과 의사 스스로가 만든 것 같다.

간단한 수술이라도 환자를 위해 세심한 수술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수술을 시행하며,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을 막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성형외과 의사의 현실이자 이상적인 모습이다. 성형외과 의사의 모습을 더 포장할 필요는 없지만, 왜곡된 이미지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학회의 서버에 매일 입력되는 각 수련병원의 당직일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련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하는지 통계자료를 학회홈페이지나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영화나 드라마에 성형외과 의사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표현되더라도 학회 차원에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미용 분야뿐 아니라 재건 분야도 성형외과의 주요 부분임을 좀 더 알려서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것도 수술기법의 개발 못지않게 성형외과의 대중화와 발전을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Hwang YM: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types of doctor characters illustrated in Korean TV medical dramas. *Korean Lang Lit* 5: 247, 2008
2. Kim SY: A paradox of plastic surgery reinforcing one's substance: 200 Pounds Beauty, Cinderella, Time. *Film Stud* 44: 33, 2010
3. Hebert L: *The actantial model*. 2012. <http://www.signosemio.com/greimas/actantial-model.asp>. accessed May 30, 2012
4. Park IC: *Semiology of Paris school*. Seoul, Minumsa, 2003, p 176